

행복한 금요 편지

학의 노래를 불러준 이여

도명국

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¹⁾

지난 2016년 늦가을 날의 오후를 잊지 못합니다.

신촌에 있던 안민학당 근처였지요. 박세일 선생님과 마지막 기억 그리고 대화가 머무는 곳입니다. 그곳에는 학의 단아한 자태로 당신의 모습이 기억의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. 내가 기억하는 가장 멋있었던 당신의 모습이.


“도박사, 뭐해, 안 들어가?” 안민학당 앞에서 서성되던 나는 멈칫했습니다.

나를 아는 분인가?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, 선글라스에 중절모를 쓰고, 트렌치코트에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. 오랜 만에 마주친 기품 있고 단아한 노신사가 나를 부르고 있었지요.

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, 일순간 '아 선생님'하고 뛰어가서 예를 갖추었습니다. 내가 선생님의 자태도 목소리도 몰라보다니.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. 그 깊고 맑은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, 쇠소리에 조용하고 나지막한 음성, 그 목소리조차 식별 못했던 나는 황망히 사죄드렸습니다.

평생을 학처럼 살아온 그 분. 그 짧은 순간에 선생님은 스치듯 퇴계의 위기지학(爲己之學)편을 말씀하셨습니다. 왜 그 말씀이 나왔는지. 그 날 거리에서 있었던 짧은 대화는 선생님과 마지막 생전 대화였습니다.

1)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도명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은 서강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, 전 한국문화산업학회 회장과 대우증권 감사로 활동했습니다.



몇 해 전 선생님과 경주에 있는 향릉골을 찾았습니다. 깊은 언덕 골짜기에 자리한 초옥에는 강종훈선생과 오누이가 외부와는 단절된 채 신선처럼 살아가는 곳이지요. 새 소리 벌레소리가 유난히 크고, 달빛에 글도 읽을 수 있을 만치 달이 밝은 곳이었지요. 선생님을 모시고 경주를 찾을 때마다 강선생의 아담하고 정돈된 초옥을 찾았습니다.

선생님은 강선생이 끓여주던 보이차 향이 방안에 가득할 때 퇴계선생의 위기지학편을 꺼내셨지요.

深山茂林之中 唯一蘭草
終日 薰香 不自知 己爲香
正合於 君子爲己之學

심산무림지중 유일난초
종일 훈향 부자지 기위향
정함어 군자위기지학

깊은 산 무성한 수풀속 난초 한 떨기 있어
종일 그윽한 향을 품어내고 있음에도
스스로는 그 향을 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니.
이야말로 군자가 스스로의 학문을 도모함에 꼭 합당하느니.

이는 위공사상체계의 사유 기반이 되는 행위규범이자 처신의 기본을 이룸이었지요.

여러 해가 흘러 그 가을날 오후의 짧은 만남에서 선생님은 제게 퇴계의 노래를 다시 꺼내셨습니다. 그 짧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선생님이 불러주신 노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. 그 해 가을 녀에 선생님은 그 향이 됴을 알고 싶었더이까....

쌀쌀한 날씨에 측은지심이 일어 더 붙잡을 수도 없었던 선생님. 그 날 선생님과 마지막 대화는 그러했습니다.

아직도 그 자리에는 선생님의 단아함이 동상처럼 서 있습니다. 학의 노래가 그윽한 향이 되어 흠날리던 그 가을날에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.

한선행복포럼에서는 ‘행복한 금요편지’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.
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.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!